

資本의 世界化 傾向에 관한 一考察⁽¹⁾

金 秀 行

이 글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世界化’(globalisation)를 맑스주의적 시각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있다. 세계화는 기본적으로 ‘資本의 世界化’라는 점과, 아직도 국민국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본의 세계화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資本의 國際化’는 1970년대 이래 크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국민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인다. 특히 노동자계급은 자본의 세계화 경향으로 말미암아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자본의 지배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 글은 언급하고 있다.

1. 問題의 提起

자본은 ‘自己增殖하는 價値’(self-valorising value)로 정의된다. 100원을 200원으로 만들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200원을 300원으로 만들려고 하며 이러한 가치증식 과정을 끝없이 계속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자본의 가치증식욕은 무한하다. 이 특성 때문에 자본은 가치증식 방법 또는 활동공간을 내포적으로 그리고 외연적으로 끊임없이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맑스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부르주아지는 생산도구들을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으며, 따라서 생산관계들과 사회관계 전체가 끊임없는 혁명을 겪게 된다. …… 생산 상의 끊임없는 혁신, 모든 사회적 조건들의 부단한 동요, 항구적인 불확실성과 격동이 부르주아 시대가 이전의 다른 모든 시대와 다른 점이다. ……

부르주아지는 생산물의 판로를 계속 확대시켜야 하기 때문에 세계 전체를 누비고 다닌다. 부르주아지는 어느 곳에서나 뿌리를 내려야 하고, 어느 곳에서나 정착해야 하며, 어느 곳에서나 연고자를 두어야 한다.

부르주아지는 세계시장의 개척을 통해 모든 나라의 생산과 소비에 凡世界的인 성격을 주게 되었다. …… 오래된 국민적 산업들은 이미 파괴되었거나 나날이 파괴되고 있다. …… 국산품에 의해 충족되었던 낮은 욕구 대신에 새로운 욕구가 등장하는데, 이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멀리 떨어진 나라들과 풍토들의 생산물이 필요하다. 지방적 국민적 고립과 자급자족 대신에 국민들 사이의 전면적인 교류와 상호의존이 등장한

(1) 이 글은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연구비를 받은 것임.

다. …… 개별 국민의 지적 창작물은 세계 전체의 공동재산이 된다. ……
 상이한 이해관계·법률·정부·조세제도를 가지고 있던 독립적인 지역들 또는 가벼운
 관련을 맺고 있던 지역들이 하나의 정부·법률·국민적 계급이익·국경·관세를 가진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었다(Marx and Engels(1848, pp.487-489)).

자본은 가치증식을 위해 국내공간을 이용하고, 그 뒤 국경을 넘어 타국에 침투하며, 궁극적으로는 세계 전체를 자기의 활동공간으로 삼게 된다. 세계가 다수의 국민국가로 분할되어 있고 각각의 국민국가가 자기 자신의 독특한 법률제도를 가지면서 무역·외환·자본이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이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것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에 비하면 여러 가지의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한다. 왜냐 하면 자본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기 출신국의 국가(또는 정부)와 타국의 국가(또는 정부)로부터 일정한 형태의 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이 자기 출신국 밖으로 확장하는 것을 특별히 資本의 國際化(internationalisation of capital)라고 부른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면서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 국제화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가치증식이므로 국제화하는 자본의 출신국과 외국자본의 침투를 받아 들이는 나라 사이에는 이익이 상반될 수 있다. 맑스주의 역사에서 '帝國主義(imperialism)'라는 이론이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자본의 가치증식욕은 무한하기 때문에, 자본은 자기의 팽창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각국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무역·외환·자본이동을 자유화하기를 바라며, 세계의 모든 국민국가에서 조세제도·산업보호정책·경쟁촉진제도·환경규제·노동법·사회보장제도 등이 균일화되기를 바랄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자본은 세계 전체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어느 곳에서든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본은 출신국이라는 국적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고 어느 나라에서든 가치증식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엄밀한 의미에서 資本의 世界化(globalisation of capital)다.

최근 '世界化'에 관한 논의가 크게 등장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더불어 탄생한 WTO체제는 각 국민국가에게 무역·외환·자본이동의 자유화는 물론 정부의 산업 지원 철폐, 정부구매 입찰에 외국인 참가 허용, 지적 재산권의 보호, 독과점 규제·환경규제·노동법의 동일화 등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들이 자본의 세계화에 필요하지만, 국민국가가 사라지거나 통합되어 '世界國家'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본의 세계화는 하나의 內在的인 傾向으로서만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 하면 각 국민국가는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자국 출신 자본 또는 자국에 정착하고 있는 자본의 축적과 팽창에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각 국민국가들 사이에 이해대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본의 세계화 경향은 주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본축적과정에 내재하는 노사대립·무정부성·과잉축적경향·경기변동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본은 公權力(국민국가든 세계국가든)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축적할 수 없고, 그리고 아직 세계국가의 형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자본이 국민국가(출신국이든 활동국이든)의 개입을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자본의 국제화를 개념적으로 명확히 하고, 그 다음으로 자본의 세계화 경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며, 끝으로 자본의 지배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이 무엇인가를 고찰하려고 한다.

2. 資本의 國際化

자본은 가치증식을 위해 여러 가지 形態를 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 상의 차이에 따라 우리는 산업자본과 상업자본 및 은행자본(또는 고리대자본 또는 이자냥는 자본)으로 구별한다. 그리고 각 資本의 循環形態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産業資本의 循環: $M - C(MP, LP) - P - C' - M'$

商業資本의 循環: $M - C - M'$

銀行資本의 循環: $M - M'$

여기서 M은 화폐, C는 상품, MP는 생산수단, LP는 노동력, P는 생산과정, C'은 잉여 가치를 내포한 상품, M'은 가치증식한 화폐이다.

산업자본의 경우, 자본가는 시장에서 생산수단(기계와 원료)과 노동력을 구입하고, 고용한 노동자로 하여금 생산과정에서 새로운 상품 그리고 가치증식한 상품을 만들어 내도록 하며, 이 상품을 팔아 원래의 가치(자본가치)와 잉여가치를 얻게 된다. 상업자본의 경우에는 자본가는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매차익을 상업이윤으로 획득하게 되며, 은행자본가는 화폐자본을 일정 기간 대부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얻는다.

위와 같은 자본순환에 運動空間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도입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세계

가 다수의 독립적인 국민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각 국민국가가 무역과 외환 및 자본이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본이 한 나라 안에서 활동하는 것과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본이 왜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가가 새로운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상업자본이 國際貿易이라는 형태로 가장 먼저 활동영역을 국제화했다. 자국에서 공산품을 구매한 뒤 외국에 팔아 이윤을 얻거나, 외국으로부터 원료를 구매한 뒤 자국에 팔아 이윤을 얻었다. 물론 중개무역도 있었는데,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뒤 다시 외국에 팔아 이윤을 얻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제활동을 가리켜 商業資本의 國際化(internationalisation of commercial capital)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상업자본가가 자국의 상품을 외국에 판매하려는 것은 국내가격과 외국가격 사이의 차이를 이윤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상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운임과 보험료, 그리고 외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를 국내가격에 더한 것이 외국가격보다 낮아야만 그 상품을 외국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므로, 상품의 수출도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영국은 면방직공업을 최초로 기계화함에 따라 면제품을 외국시장에 대량으로 수출하게 되었으며, 관세장벽 등으로 영국산 면제품의 침투를 막지 못한 영국 식민지의 면방직 공업은 괴멸한 것이다.

기계제 대공업이 확립되면 생산능력은 거대하기 때문에 제품의 販路問題 또는 商品價値의 實現問題(realisation problem)가 크게 대두할 수밖에 없으며, 상품시장의 개척을 둘러싸고 각국 자본가들과 그들의 후원자인 각국 정부들은 상호간에 경쟁과 투쟁의 관계를 맺게 된다. 특히 세계적인 불황으로 상품시장이 크게 축소하는 경우에는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경제대국이 식민지와 종속국을 하나의 經濟블록으로 묶어 자기의 영향권 아래 두려고 함으로써, 국제무역은 더욱 축소하고 무역전쟁이 무력전쟁으로 전개할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 은행자본이 국제대부업무에 종사하여 타국의 정부나 기업에게 자금을 대부함으로써 이자를 취득했다. 물론 여기에서도 외국으로부터 예금을 흡수하여 이것을 자국이나 외국에 대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국제활동을 銀行資本의 國際化(internationalisation of bank capital)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국제대부도 국내금리보다 외국금리가 높아야만 가능한데, 외국에 대한 대부는 국내대부보다 큰 위협을 지니고 있으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힐퍼딩에 의하면, 國際貸付는 상품수출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Hilferding(1910, p.454)]. 상품시장을 확보하거나 개척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본가들은 자기의 상품을 구매하려는 외국인에게 대부를 알선함으로써 고객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상품수출 규모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었다. 만약 브라질 정부에게 철도 건설에 필요한 공산품을 판매하려는 영국의 산업자본가가 브라질 정부에게 영국계 은행의 차관(연이자율 5%)을 얻어 준다면, 그리고 만약 브라질의 연간 외환취득액이 10억 파운드라고 한다면, 브라질은 매년 10억 파운드를 차관 이자로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200억 파운드의 차관을 얻어 200억 파운드의 공산품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자본의 국제화는 국제대부라는 형태 이외에 國際的인 株式投資, 外換投機 등등의 형태도 될 수 있다. 특히 화폐형태로 있는 은행자본은 국민국가의 특별한 규제(예: 외국환관리규정)가 없는 한 유리한 투자처를 찾아 이곳 저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자율의 국제적인 균등화가 쉽게 달성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대상에 대해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자금을 갑자기 회수함으로써 불균등발전이 더욱 확대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자본이 국제화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외국에서 생산을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자본이 외국에서 원료를 채취하거나 공산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세우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산업자본의 국제화는 현지의 노동자를 현지의 생산과정에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무역이나 국제대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점을 가진다. 임금노동자(즉 가진 것이라고는 자기의 노동력뿐이므로 노동력을 팔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노동자)의 부족 문제가 산업자본의 국제화과정에서 최초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始初蓄積(primitive accumulation)의 폭력적 방법이 동원되곤 했다 [Hilferding(1910, pp.445-450)].

産業資本의 國際化(internationalisation of industrial capital)는 처음에는 선진국의 산업자본이 후진국에서 공업원료를 채취하기 위해 직접투자를 행한 것인데, 그 뒤 자연적인 원료 대신에 인공적인 원료가 다수 개발되고 제조업부문에서 공정분할이나 제품차별화가 진행하면서 산업자본이 세계 각국에 직접투자를 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거대한 판매시장을 겨냥해 해외에 계열사를 건설하게 되었다.

3. 1970年代 以來의 資本의 國際化

1973년 10월의 제1차 석유파동으로 1945년 이래의 세계적인 장기호황이 끝났는데, 장

기호황의 시기에 세력을 강화한 노동자계급은 1930년대에 필적하는 생산 감소와 실업 증가에 강력히 저항했다. 그러나 1979/80년 겨울의 제2차 석유파동으로 선진국 경제가 다시 타격을 받으면서, 국민경제의 부흥이나 국제경쟁력의 강화라는 國民主義的 이데올로기가 크게 부활했고, 이리하여 노동자계급의 세력은 대폭 약화하고 신보수주의적 또는 신자유주의적 정부가 사회민주주의적 정부를 대체하게 되었다. 1979년 이래 지금까지의 영국 보수당 정권, 그리고 1981-1992년의 미국 공화당 정권이 바로 그 예다.

新保守主義的 政府는 자본의 수익성을 높힐 수 있는 온갖 정책을 실시했다. 첫째는 노동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했다. 둘째는 교육과 보건에 관한 지출을 삭감함으로써, 민간자본이 교육과 보건분야에 진출하게 했다. 셋째로 실업수당의 지급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를 엄격히 심사하고 수혜액을 낮춤으로써 노동참여를 강요했다. 넷째 수익성있는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자본의 투자대상을 넓혔다. 다섯째 위생·안전·환경·독과점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다. 여섯째 자본의 해외이동에 관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국내자본의 해외투자를 자유화했다. 일곱째 자국 자본의 대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무역·외환·자본이동의 자유화를 타국들에게 강요하고, GATT·IMF 등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적인 차원의 협상을 개시하여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WTO의 설립을 달성했다.

세계적인 불황에서 자본은 필사적으로 시장 개척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상업자본의 경우를 보자. 거대 기업의 ‘綜合商社’ 형태가 상품의 수출과 수입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 현재에는 대규모 도매상이 세계적으로 판매망과 구매망을 구축함으로써 시장을 통하지 않고 내부거래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약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은행자본의 경우를 보자. 1973년의 유가 인상으로 석유생산국(OPEC)은 거대한 석유달러를 얻게 되었고, 자국의 경제개발에 사용하고 남은 달러를 선진국의 은행에 예금했다. 선진국의 은행은 이 석유달러를 대부해야 했는데, 선진국 경제는 불황으로 자금 수요가 크지 않았으므로 후진국 중 유망한 나라들에 집중적으로 대부한 것이다. 후진국의 정치지도자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거의 강요하다시피 대부했기 때문에, 1980년대의 외채위기는 당연한 것이었다. 물론 이른바 ‘新興工業國’(NICs)도 석유달러의 환류에 의해 탄생한 것이지만.

후진국의 외채위기에 직면하자, 선진국의 은행자본은 후진국에 대한 대부보다는 증권투자자에 몰두하게 되는데, 모든 채무증서가 증권으로서 매매대상이 되었다. 컴퓨터에 의한 자금 이전의 신속성과 수익전망에 관한 정보 보급의 신속성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

하기보다는 불안정성을 더욱 증폭시켰다. 1987년 10월 뉴욕 주식시장의 붕괴는 대수롭지 않는 풍문 때문에 세계의 금융시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은행자본은 이제 완전히 投機性 資金(hot money)으로서 각국의 금리·환율·물가·경제성장률·주식가격·정치상황 등등의 변화에 관한 예상에 의거해 세계 전체의 공간을 누비면서 세계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²⁾

마지막으로 산업자본의 국제화 경향을 살펴보자. 불황에 따라 판매시장이 축소하고 국제경쟁이 치열하게 됨에 따라, 산업자본은 원가절감에 노력했다. 생산공정을 혁신하기 위해 컴퓨터화와 로봇화가 크게 진전했기 때문에, 생산공정을 과학적으로 분할하여 각종 부품의 생산을 여러 나라에 효율적으로 배치했으며, 또한 완제품을 질적으로(예컨대 고급과 저급으로) 구분하여 각국의 수준에 맞게 현지에서 생산했다.

그런데 직접투자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기보다는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주된 경향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있다. 선진국들은 소득수준과 생활습관이 비슷해 시장이 넓다는 것이 하나의 설명이지만, 이 설명은 선진국의 제조업체들이 교차적으로 상대국에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해명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미국의 자동차회사가 유럽에 공장을 세우고, 유럽의 자동차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시장이 넓다는 것만으로는 교차적인 투자를 설명할 수가 없다.

선진국 사이의 직접투자를 勞動에 대한 戰略으로 설명하는 것이 주요한 견해로 등장하고 있다(Jetto-Gillies(1994, Ch.14) 참조). 기업이 중간재 시장과 지식 시장을 內部化(internalisation)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만약 국내에서 확장한다면 자본은 점점 더 강해지고 전투적인 노동과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해외로 확장함으로써 자본은 보다 더 분할되고 보다 덜 조직된 노동과 대면하게 되며, 노동을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다. 더욱이 해외로 진출할 때는 처음부터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신 기술 도입에 따른 노자대립을 회피할 수 있다. 이처럼 노동에 대한 전략으로 산업자본이 국제화하기 때문에, 國際的인 下請도 매우 중요한 국제화 형태로 등장하게 된다.

(2) 각국 정부가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은행자본은 이러한 불안정화 작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금융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각국 정부가 은행자본의 이익을 '영원히' 보장하라는 요구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多國籍企業의 動向

자본의 국제화가 진전함에 따라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기업들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러한 기업을 多國籍企業(multinational or transnational corporation)이라고 부른다. 다국적기업은 광업·제조업·금융업·무역업·건설업·도소매업 등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국제하청·지적재산권 사용허가(licensing)·합작투자·경영참가 등등으로 국제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1985년 광업과 제조업의 최대 600개 다국적기업을 출신국별로 보면, 미국 275개(45.8%), 일본 95개(15.8%), 영국 62개(10.3%), 독일 37개(6.2%) 등으로서[Jetto-Gillies(1994, p. 29)], 다국적기업은 출신국에 본부를 두면서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을 국적이 없는 기업이라든가 국적을 초월한 기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해외직접투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제1차산품 특히 원료 분야에 집중했으나, 1950년대 말부터는 제조업분야로 방향을 전환하여 1960년대 이래 지배적인 분야로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서비스분야(금융·무역·도소매)가 크게 증가했으며, 1980년대 중반에는 총 해외직접투자 잔액의 거의 40%가 서비스분야였다[Jetto-Gillies(1994, p. 25)].

이리하여 총 해외직접투자 잔액의 투자지역별 구성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1914년에는 선진국 대 후진국의 비율이 37% 대 63%였고, 1938년에는 34% 대 66%였지만, 1960년에는 67% 대 33%, 1985년에는 75% 대 25%로 역전되었다[Jetto-Gillies(1994, p. 25)]. 물론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후진국에 대한 투자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1993년의 연간 해외직접투자액은 2,063억 달러였고, 그 중 중국에 대한 투자비율이 13%를 차지했으므로 후진국에 대한 투자비율은 35%로 증가했다[UNCTAD(1995, Annex Table 1)].

해외직접투자 잔액은 1960년의 670억 달러에서 1973년에는 2,07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1985년에는 6,933억 달러로 증가했기 때문에, 각국 출신의 다국적기업이 세계적인 규모의 활동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985년의 잔액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순위를 보면 미국이 2,507억 달러로서 1위고 영국이 1,047억 달러로서 2위, 일본이 836억 달러로서 3위, 그리고 독일이 600억 달러로서 4위다. 그런데 1981-85년의 연평균 해외직접

투자액을 대외유출액과 대내유입액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대내유입액은 192억 달러 대외유출액은 86억 달러로 대내유입액이 오히려 크고, 영국·일본·독일의 경우는 대외유출액이 대내유입액보다 훨씬 크다(Jetto-Gillies(1994, pp.22, 24)).

또한 각국의 무역에서 다국적기업(자국 출신과 타국 출신 포함)의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1985년)의 경우 수출총액에서 31.0%, 수입총액에서 40.1%이었고, 일본(1983년)의 경우 수출총액에서 31.8%, 수입총액에서 30.3%이었다(Jetto-Gillies(1994, p. 37)). 이렇기 때문에 각국의 무역정책은 다국적기업의 内部去來 증가와 移轉價格(transfer price)의 조작으로 그 유효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내유입 해외직접투자액이 국내총고정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³⁾

다국적기업의 활동 또는 자본의 국제화는 世界金融市場(외환·채권·주식시장)의 거대한 성장에서 보다 실감있게 나타난다.⁽⁴⁾ 하루의 외환거래액은 1983년의 600억 달러에서 1992년에는 9,000억 달러로 증가했고, 최근에는 1조 3,000억 달러에 달하는데 OECD의 총 외환보유액은 6,400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리고 외환거래액과 세계무역액 사이의 비율은 1983년의 10:1에서 1992년에는 60:1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외환거래가 무역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거래를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은행의 국제대출 잔액(재예금된 것을

(3) 국내총고정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대내유입직접투자액의 비중(연평균: %)

	1981-1985	1986-1990	1991-1993
세계 전체	2.3%	4.1%	3.8%
선진국 전체	2.2	4.6	3.3
미국	2.9	6.9	3.2
영국	5.6	14.6	10.0
독일	1.2	2.0	1.4
일본	0.1	0.0	0.1
후진국 전체	3.3	3.2	5.7
아르헨티나	5.0	11.1	37.6
브라질	4.3	1.7	1.5
중국	0.9	2.1	10.4
한국	0.5	1.2	0.6
말레이시아	10.8	11.7	24.6
싱가폴	17.4	35.0	37.4
대만	1.5	3.7	2.6
홍콩	6.9	12.9	5.7

資料: UNCTAD(1995, Annex Table 5).

(4) The Economist(1995, October 7-13th)의 특집 'The World Economy' 를 참조하라.

상쇄함)은 1975년의 2,650억 달러에서 1994년에는 4조 2,000억 달러로 급증했고, 국제채권의 잔액도 1982년의 2,590억 달러에서 1994년에는 2조 달러로 급증했다. 국제채권시장은 각국 정부의 대규모 공채 발행으로 크게 성장했는데, 정부 공채 중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중은 프랑스의 경우 1980년의 1%에서 1992년에는 43%로 증가했고, 영국의 경우 9%에서 17%로 증가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20% 수준에서 안정적이었다.

세계금융시장의 규모가 한 나라의 경제력(예: 국내총생산·수출액·외환보유액)에 비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자본이동은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으며, 또한 한 나라의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⁵⁾

5. 자본의 세계화 傾向과 勞働者階級

자본의 국제화가 진행함에 따라 노동자계급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첫째로 자본은 세계 전체를 상대로 최적 입지를 찾아 움직이기 때문에 취업의 불안정성이 증가했는데, 기업이 컴퓨터화와 자동화로 해고를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성의 강화는 노동자계급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둘째로 자본은 세계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으나, 노동은 법적인 규제나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세계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은 불리한 입장에 있다. 셋째로 후진국의 노동자들은 선진국 노동자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자본주의적 발전을 통해 조그마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본의 국제화는 세계 전체의 노동자계급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넷째로 자본의 국제화에 따라 국민국가의 개입 능력이 약화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은 국민국가에게 압력을 가해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정책을 획득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었다[Ross(1995)].

이처럼 노동자계급의 생존 조건이 악화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세력도 크게 약화했다. 단체협약은 점차 기업단위로 분산화하고 있으며, 勞働者階級の 分節化(fragmentation)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단결성과 정치적 역량도 약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연대성에 의해 억제되었던 각종 갈등(예: 인종적·성적·종교적 갈등)이 표출하고 있다[Piven(1995)].

(5) 예를 들면, 1987년 10월에는 세계적인 증권거래소 공황이 발생했고, 1992년 9월에는 영국이 유럽연합의 환율조정장치(ERM)를 이탈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1993년 8월에는 유럽연합이 각국 통화간 환율변동폭을 기준치의 상하 15%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었고, 1995년에는 멕시코가 폐소화 위기로 혼란을 겪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도 있다. 첫째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그렇게 손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투자 중 고정비용이 적은 산업의 경우(예: 의류·신발·장난감)에는 자본은 새로운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지만, 생산설비 등 고정자본의 투자가 큰 산업(예: 화학·제약)이나 장기간에 걸쳐 하청기업망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 산업(예: 전자·자동차)에서는 자본은 손쉽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은 가치증식 조건이 불리한 지역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어쨌든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둘째 자본의 국제화가 반드시 國民國家의 自律性 또는 介入能力을 축소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각국 정부는 자기 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자본(자국 자본이든 타국 자본이든)의 수익 활동에 적합한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을 포기하고 신자유주의적 또는 신보수주의적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과 국민국가 사이의 세력관계가 자본의 우위로 역전했더거나 국민국가가 쇠퇴하고 있다는 주장은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은 출신국에 강력한 기반을 두고 있으며, 출신국의 경영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나 WTO 협상과정이나 미·일 무역마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국적기업은 자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과 국민국가 사이의 관계를 대립·갈등의 관계로 파악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국민국가가 자본의 가치증식 조건(정치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조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어느 시기에는 사회민주주의적으로 변형하고 다른 시기에는 신보수주의적으로 변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신보수주의적 정책(예: 통화주의·공급중시경제학·규제완화·민영화)은 각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김수행(1995) 참조]. 이 때문에 자본의 가치증식 방식 특히 자본의 세계화 경향에 대해 국민국가의 개입이 앞으로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는 1981-92년 동안의 공화당 정부로부터 1993년 1월에는 민주당 정부로 교체되었고, 영국에서는 1979년 이래의 보수당 정권이 다음 선거(1997년 4월 이전에 실시 예정)에서는 노동당에게 자리를 양보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대다수의 국민에게 경제적 안정을 줄 수 없는 정부는 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국민국가는 자본의 국제화가 야기하는 각종의 부정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본의 국제화와 자본의 이동성 증대 때문에 국민국가의 개입능력이나

자율성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각 국민국가가 자본의 국제화와 자본의 이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개입을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6. 資本의 支配를 克服하는 方法

1917년 이래 70여년간 이른바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한 소련이 다시 자본주의로 역전함에 따라 여러 가지의 중요한 논쟁점이 제기되었다. 첫째는 과연 소련이 맑스가 말한 사회주의를 실현했는가? 둘째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 관한 논의가 주로 자본가로부터 생산수단을 수탈하는 것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었는가? 셋째로 자본의 국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一國社會主義’가 과연 가능할까? 넷째로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운동은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인가?

최근 메자로스(Istvan Meszaros)와 밀리반드(Ralph Miliband)는 매우 솔직하게 위의 문제들에 대해 대답하고 있다[Meszaros(1995), Miliband(1994)].

메자로스에 의하면, 자본제도(capital system)의 핵심은 位階的인 社會的 勞動分業, 즉 직접적인 생산자들에 대한 지배에 있다. 따라서 자본의 인격화(personification of capital)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이지만 현실사회주의(그는 ‘포스트 자본주의’라고 부른다)에서는 권력층이었다. 그러므로 자본제도를 초월하는 새로운 사회는 연합한 생산자들이 진정한 자주경영을 실시하면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일 것이다.

밀리반드도 거의 동일한 의미로 ‘社會主義’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는 민주화와 평등화라는 두 개의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활동수단의 주요 부분을 사회화하는 것은 또다른 목적이면서 위의 두 목적을 실현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Miliband(1994, p. 3)]. 반면에 1917년 소련에 그리고 1945년 이후 여러 나라에 탄생한 ‘共產主義’는 중앙집중적인 명령경제와 공산당 일당 독재를 특징으로 지녔으며, 직접적인 생산자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자본을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 메자로스에 의하면, 자본제도는 사회의 신진대사를 통제하는 하나의 방식이므로 ‘打倒하거나 撤廢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代替하거나 止揚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자본의 지양을 하나의 ‘行動’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장기간에 걸친 再編過程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자본은 국가와 임금노동과 더불어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국제적인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연계에 의해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의 지양은 장기간에 걸친 재편과정일 수밖에 없다. ‘政治的’ 혁명은 긴급한 과

제의 수준에서는 성공할 수 있지만, 오직 ‘社會的’ 혁명과 적극적인 재편작업만이 불가역적인 구조변혁과 장기적인 업적을 보장할 수 있다[Meszaros(1995, Chs. 13 and 20)].

한편 밀리반드는 경제의 사회주의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공공부문(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부문)이 출현해 주된 영역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상당한 영역이 협동조합에 의해 장악되며, 그리고 주로 중소기업으로 구성되는 사적 부문이 잔존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경제단체들은 ‘自由로운 生産者 聯合’에 접근하도록 해야 하며, 탈상품화를 통해 인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차이는 경제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이며 사회질서의 모든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Miliband(1994, Ch. 4)].

마지막으로 자본의 국제화는 자본의 지양에 어떤 장애를 야기하는가? 메자로스과 밀리반드 모두 자본의 국제화가 크게 진행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一國社會主義’는 유토피아라고 평가한다. 특히 밀리반드는 사회주의 정권의 출현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으로서 정부안의 고급 공무원·군인·경찰·정보요원, 그리고 사회의 보수세력들(예: 보수당·교회·언론·방송·기업)을 열거한 뒤, 이러한 국내반대보다는 국제화한 자본이 국민정부에 가하는 제약과 강력한 외국정부·국제기구(예: IMF, World Bank)의 영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Miliband(1994, Ch. 6)). 따라서 사회주의적 좌파의 국제조직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메자로스나 밀리반드는 자본의 국제화가 국민국가를 약화시키고 있다기보다는 국민국가들 사이의 헤게모니 쟁탈전을 야기해 세계를 支配와 從屬의 構造로 재편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전략은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하며, 社會主義的 國民國家가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은 경제적 통합(예: EU, NAFTA)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논의들은 자본의 팽창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는 정세분석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을 지양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물질적 주체적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인간의 필요를 보다 많이 그리고 보다 잘 충족시킬 수 있다는 사회주의적 신념은 위와 같은 형태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7. 맺음말

이 글에서는 자본의 세계화는 엄밀한 의미에서 실현되고 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의 傾向으로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현재의 국제적 교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국제화가 더욱 타당하다. 그러나 정보통신과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생산과정의 공정별 분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계 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각국에 본부를 두면서 세계를 통제하는 다국적기업이 수없이 생긴 것은 이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자본은 가치증식과정에서 노동자계급과 필연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에 의해 인간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은 항상 어디서나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세계국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민국가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자본의 국제화는 국민국가의 개입 능력을 縮小시킬 수는 있지만 국민국가를 消滅시킬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좌파세력의 사회주의 전략은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하면서 국제적인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70여년간의 현실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 복귀한 역사적 사실로부터 우리는 자본을 지양하는 것이 단순한 정치적 혁명 이상의 長期的이고 根本的인 社會變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전화: (02)880-6374

팩시: (02)888-4454

參 考 文 獻

김수행(1995): “영국 신보수주의의 경제적 귀결,” 『이론』, 겨울.

Hilferding, R. (1910): *Das Finanzkapital*, 김수행·김진엽 역, 『금융자본』.

Letto-Gillies (1994): *International Production: Trends, Theories, Effects*, Polity Press.

Marx, K., and F. Engels (1848):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in *Collected Works*,

Vol. 6.

Meszaros, Istvan (1995): *Beyond Capital*, Merlin Press.

Miliband, Ralph (1994): *Socialism: For a Sceptical Age*, Polity Press.

Piven, Frances Fox (1995): “Globalising Capitalism and the Rise of Identity Politics,” in Leo Panitch (ed.), *Socialist Register*, The Merlin Press.

Ross, George (1995): “Saying No to Capitalism at the Millenium,” in *Socialist Register*.

UNCTAD (1995): *World Investment Report*.